

# 장흥군 태양광시설 마구잡이 조성 막는다

발전·개발행위로 허가 이원화... 난개발 난무·민원 급증  
면적 쪼개기 편법도 판쳐... 철차 일원화 부작용 줄이기

장흥군이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장흥군은 지난 20일 실·과장 토론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현행 '태양광발전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로 이원화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과정을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무분장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한 부서에서 두 가지 허가 여부를 다뤄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량) 보급률을 현행 3%대

에서 11% 선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내놓아 장흥군을 비롯해 도내 지자체마다 편법으로 발전허가를 받는 사례가 늘고,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태양광발전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로 나눠 이원화된 행정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발전용량(선로) 여부 판단에 따라 ▲100kW 이하는 시장·군수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 ▲3000kW 이상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업체들은 면적을 분할하거나 농지보다 수익금이 많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

실제로 업체들은 수십만 평의 임야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면적을 분할(1구좌 방식 100kW 이하)해 일선 지자체가 관장하는 편법을 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등 경제적 부수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버섯재배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농업용 시설이라 규제가 적은데다 일반 임야보다 수익금이 1.5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비교적 일조량이 풍부하고 경관이 좋은 장흥과 함평, 무안, 신안, 해남, 강진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 조성과정에서 산림훼손 우려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전·답) 면적이 감소하고, 건축물의 경우 자연경관을 훼손시켜 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김성 군수는 3월 말 열린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정부의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권장에 따라 주민들의 난개발 우려 등 관련 민원이 폭증해 지자체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지역에는 지난 2000년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144건(3만900kW)이 허가됐다. 이 가운데 45건은 설치가 완료됐고, 94건은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이낙연 전남 도지사가 강진원 군수와 함께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업 2세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진원 제공>

## 이낙연 지사 강진 주민과 진솔한 '감성토크'

가업 잇는 청년·군민과의 대화... 애로 사항 등 청취

이낙연 도지사가 최근 강진을 찾아가 가업을 잇고 있는 청년 및 군민들과 감성토크를 가졌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지사는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과의 대화에 앞서 '톡(talk) 터놓고 전남의 희망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지역 가업2세 청년 100여명을 만나 가업을 잇는 매력과 성공사례,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청년들은 시·군 청년단체 조직결성, 청년과 도지사간 SNS소통, 청년층 귀농·귀촌 지원 확대, 농업분야뿐만 아닌 상업과 서비스 분야 가업 2세 지원, 맛산업 가업 2세 시·군특화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도 여성, 노인, 농·수산 대표 8명이 무대에 올라 도지사와 감성토크 형식으로 독특하게 진행됐다.

패널들은 전남도와 강진군이 추진하는 여성정책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 문제, 엔저 하락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수출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낙연 도지사는 "귀농·귀촌은 21세기의 추세다. 그런 흐름에 부응해 도시를 떠나 전남 농촌으로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매력적인 정책을 만들겠다"며 "강진이 성공하면 어느 시·군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강진·장흥·영암 3개군 농·특산물 수도권서 공동 직거래 장터 열어

강진, 장흥, 영암 3개군의 농·특산물 수도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진, 장흥, 영암 3개군은 지난 22~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 문화의 거리에서 '한마음 2·5·4 농부장터'를 열었다.

이번 장터에서는 ▲강진군의 유기농쌀, 파프리카, 여주, 전통장류 등 16업체 73개 품목 ▲장흥군의 한우, 표고, 햇개 등 9개 업체 64품목 ▲영암군의 고구마, 김말랭이, 잡곡류 등 26업체 55개 품목 등 총 52개 농가 및 업체가 184개의 품목을 선보였다.

도시에서 열리는 시골장터인 만큼 넉넉한 인심의 이벤트도 이어졌다. 강진군은 2·5·4장터인 만큼 생일이 2일, 5일, 4일, 24일, 25일인 구매고객 100명에게 샘플

1kg을 증정했다. 또한 강진의 대표 농산물 중 일명 '레드(Red)'로 이름 지은 파프리카, 딸기, 장미 홍보를 위해 3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붐을 무료로 선사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우선 농·특산물을 자랑하는 남도 3개군이 함께 모여 도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면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먹을거리를 선보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마음 2·5·4 농부장터는 지난해 강진, 영암, 장흥군이 농특산물 판로확대와 도시 고객층 확보를 위해 공동 마케팅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했다. 3개군의 전통 장남(장흥 2일, 영암 5일, 강진 4일)로 '이날 오셔서 사세요'를 의미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월출산 자락 '세작' 수확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를지게 한다'는 곡우인 23일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자락 다원에서 첫일 수확이 한창이다. 곡우 무렵에 채취해 만드는 세작(細擘)은 녹차중 최상품으로 친다. <강진원 제공>

## 영암경찰 정기 노선버스 음주운전 단속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영암경찰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영암경찰서(서장 민성태)는 릴레이 음주단속과 병행해 정기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이에 맞춰 읍내파출소는 지난 21일 오전 정기 노선버스 출발 전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점검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나섰다.

영암경찰서 읍내파출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제로'화와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 조선시대 병사들의 밥상 어땠을까?

24~26일 강진병영성 축제

조선시대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했던 육군 총사령부 격인 강진군 병영성에서 24~26일 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전라병영성 축제'는 조선시대 병사가 즐겨 먹었던 밥과 병영성을 근간으로 전국을 누볐던 병영상인 소재를 활용한 특별한 밥상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병영성 병사의 상차림에는 보리밥 비빔밥과 숙된장국, 토종 갯김치, 배추김치가 기본 반찬으로 오른다. '조선시대 병사 밥상(사진)에 빠지지 않았다'는 두부조림과 강진군 특산품인 토하젓이 별미 반찬으로 곁들여진다. 가격은 한상(1인분)에 5000원이다.

병영상인 밥상도 차려진다. 조선시대 '복에는 개성상인, 남에는 병영상인'이란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조선팔도에서 맹활약했던 병영상인들을 소재로 스토



리를 가미한 음식이다. 상인들이 장사하느라 바쁜 틈에 간편하게 먹으며 영양을 챙긴 것으로 짐작되는 소머리 국밥(일명 '병영상인 붓집국밥')과 깍두기, 나물반찬이 상에 오른다. 한상(1인분)에 6000원이다.

이 밖에도 곤장과 형들이 준비된 조선시대 형벌체험, 조선병사 딱총 만들기 등을 비롯해 조선시대를 떠올리게 할 병마절도사 임성식, 병사포 호령-큰소리 대회 등 체험위주 가족단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상무 Biz Center

##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편의점, 공인중개사사무실	잔여 128㎡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 해숫음 부동산

### 수완지구 현진에버빌 아파트 임대

▶ 광산구 수완동 933 해솔 현진에버빌  
1단지 1층 / 53평  
정남향 / 초중고 인접 / 로얄동 / 즉시입주

◆ 전세 4억  
(월세 보2억/월100만원)

### 공인중개사사무소 674 - 2006